

擬聲擬態語의 辭典 處理와 그 方向*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愼重珍**

1. 머리말: 의성의태어가 사전에서 왜 처리하기 어려운가?

일반언어이론만으로 사전을 바라볼 때, 그 등재소(lemma)의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꼭 한계에 부딪힌다. 이것은 사전편찬과 관련해서 독특한 이론과 절차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휘론(lexicology)과 사전학(lexicography)은 언어학 내의 독립 분과로 자리매김될 수 있고, 특히 사전편찬자(lexicographer)는 전문직 종사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사랑’과 함께 ‘국어사랑’을 하는 우리들에게 꾸준히 관심 받아 왔던 국어사전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국내에서도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학술논문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90년대를 거쳐 새천년을 전후해서는 국어사전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결과물과 계획들이 우리의 관심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 최근의 사전관련 결과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¹⁾ 그 계획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세종계획의 일환인 한국어 전자사전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 이 글은 2000년 8월 14일~16일에 있었던 제21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 때 토론과 질의에 참여해 주었던 많은 선생님들께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표한다.

** 울산대 강사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말뭉치 개발 및 운용과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의 《연세한국어사전》 등도 대표적인 결과물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중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은 기존의 국어사전이 지닌 단점을 한 단계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본고의 목적은 그 특징을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의성의태어가 어떤 지침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고,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지적함으로써 그 장단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친절한 사전이 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삼는다.

이 분절에서 마지막으로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의성의태어가 다른 문법범주보다 왜 사전에서 처리되기 어려운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마무리에서 의성의태어 처리는 끝까지 사전편찬 실무진을 괴롭혔던 작업 중에 하나였다. 이유는 ‘사전’이라는 ‘공간’이 갖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일반언어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문법범주 중에서 기술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용언류(동사, 형용사, 계사 등)나 문법 어휘소(grammatical lexeme; 조사, 어미, 접사 등)를 든다.²⁾ 진자는 예컨대 동일한 어휘소가 다양한 어휘 단위(lexical unit/sense)를 가진다거나 그 단위에 따라 다양한 의미역과 논항을 취하기 때문에 기술의 어려움을 겪는다. 한편 후자는 어휘적 기능을 갖는 어휘소에 비해 그 문법적 기능을 기술한다는 자체가 어렵거니와 그 기술은 반드시 메타언어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더더욱 기술이 용이하지 않다. 물론 사전에서의 이들에 대한 기술은 사전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바, 그 기술상의 어려움은 남게 된다.

그러나 의성의태어를 포함해서 부사류들은 일반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언어학자들은 그 기술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부사의 의미는 유의어를 나열하는 것으로 만족해 왔고, 문법적 기능은 용언류나 부사 및 문장 자체, 심지어 명사도 수식할 수 있다는 특수한 기능을 예문과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큰 이견없이 받아들여 왔다. 이렇듯 쉽게 보이는 부사가 사전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오게 되면, 용언류나 문법 어휘소만큼이나 사전처리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유는 부사에는 유의어 및 반의어 그리고 관련어 및 참고어가 많기 때문이다. 효율적이고 친절한 사전이 되기

2) 물론 체언류(명사, 대명사, 수사)들도 기술이 결코 쉽지 않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의 명시성과 함께 기술의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유의어 및 반의어 그리고 관련어 및 참고어가 많다는 말은 사전의 거시구조(macro-structure)상 기술에서 체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환언하면 ‘효율적이고 친절한 사전’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로 구축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고도로 숙련된 사전편찬자들이 집필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의어 및 반의어 그리고 관련어 및 참고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체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점을 상기하고서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사로서 의성의태어가 사전편찬자들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사전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성의태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사전 미시구조(micro-structure)상 기술의 계기적 순서에 따라 의성의태어에 대한 표제어, 뜻풀이, 관련어, 참고어, 용례, 파생어의 처리를 검토한다.

2.1 표제어

표제어 검토는 주표제어/부표제어, 어깨번호, 붙임표 순으로 한다. 이에 앞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의성의태어 범위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의성의태어는 다음과 같은 조어상의 특징을 가진 말들을 가리킨다.

① 자음이나 모음의 교체에 의하여 어휘를 만들어 낸다.

달그락달그락:덜그럭덜그럭, 금지락금지락:금지럭금지럭

② 반복에 의하여 어휘를 만들어 낸다.

굵름:굵름굵름, 까옥:까옥까옥, 번쩍:번쩍번쩍

③ '-하다, -거리다, -대다, -이다'가 붙어서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낸다.

속닥하다, 속닥거리다, 속닥대다, 속닥이다, 속닥속닥하다

(2) ①, ②, ③에 속하는 어휘들을 의성의태어로 다룬다. 단, '질탕(跌宕)거리다, 충동(衝動)거리다'와 같이 한자어와 '-거리다/대다'의 결합형은 의성의태어로 처리하지 않는다. 의성의태어는 모두 고유어이다.

①에 의거하면 '조금/쪼금'류를 배제할 수 없고, ②에 의거하면 '마디마디'류를 배제할 수 없다. ③에 의거하면 '고래고래'류가 배제되고, '흥성(興盛), 법석(法席); 으스, 부시'류를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자어에서 유래한 '질탕, 충동, 흥성, 법석' 및 '굉굉(轟轟), 악악(謔謔), 쟁쟁(錚錚)' 등을 의성의태어 범주에서 배제해야 하는가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은 '쟁쟁'의 '-거리다/대다/하다' 파생어를 부표제어로 등재하고 있다.

2.1.1 주·부표제어

의성의태어의 단독형과 첩어형을 주표제어로 삼고, 미시구조 속에 그 파생어를 부표제어로 재배열(regroument)시키고 있다. 거시구조상에 분할배열(dégroument)되어 있는 관련어 및 참고어는 반드시 기본표제어를 설정했는데, 기본표제어를 참조하도록 하는 기호는 '='이고, 일반표제어를 참조하도록 하는 기호는 '≋'이다. 예를 보이면 다음 (3)과 같다.

(3) **꾸물**

꾸물-거리다

꾸물-대다

꾸물꾸물

꾸물꾸물-하다

검벽검벽 #4 「부」 = 검벽검벽.

끔벅끔벅 #4 「부」 뜻풀이. ≋ 검벽검벽.

의성의태어의 어근에 대한 상세정보는 ‘-거리다’ 부표제어를 대표로 삼아 제시하고 있다. 단, 파생어가 하나일 경우나 ‘-하다’, ‘-거리다’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한 파생형을 일일이 주표제어로 나열하고, 상세정보를 주었다. 한편 의성의태어에서 파생한 표제어들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이 눈에 띄는데,

- (4) 의성의태어에서 같은 어휘군 내의 표제어끼리는 용례를 참고하여 파생어를 일관성있게 제시한다.³⁾ 예컨대 ‘속닥속닥’, ‘쑥닥쑥닥’, ‘숙덕숙덕’, ‘쑥덕쑥덕’에 ‘-하다’가 결합한 형태는 현재 ‘쑥닥쑥닥하다(북)’, ‘쑥덕쑥덕하다(북)’만 등재되어 있는데, ‘쑥닥쑥닥하다’나 ‘쑥덕쑥덕하다’가 남한어로 쓰이지 않는다고 판정이 되면 현재의 처리를 따르고, 이들 어형이 남한어로 가능하다면 ‘속닥속닥하다’와 ‘숙덕숙덕하다’도 등재한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원래 북한어였던 ‘쑥닥쑥닥하다, 쑥덕쑥덕하다’가 남한어로 등재되어 있다. 최종적으로는 이들을 남한어로 파악한 것이다. 기존 사전들의 처리와는 사뭇 다른 결과인데, 이는 같은 어휘군에 속하는 파생어의 일관된 처리를 위한 고의성을 들어낸 셈이다.⁴⁾

- (5) 소어휘군 내의 각 단어들에 대응되는 비표준어형들은 일관되게 등재하거나 삭제한다. 예컨대, ‘속소그레하다, 속수그레하다, 쑥소그레하다, 쑥수그레하다’에 대응되는 비표준어 ‘속소그르르하다, 속수그르르하다, 쑥소그르르하다, 쑥수그르르하다’ 모두 등재해야 한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속수그르르하다’가 미등재 상태이다. 물론 변명의 여지는 있다. 이것은 현대국어 화자에 의해 쓰이지 않기 때문에 등재

3) 같은 어휘군이란, 큰말 계열과 작은말 계열의 어근이나 부사, 그 반복형, ‘-거리다/대다’ 결합형, ‘-하다’ 결합형, ‘-이다’ 결합형을 말한다.

4) 의성의태어 처리에서 일관성과 체계성을 꾀한 대표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거리다’형과 ‘-대다’형은 항상 짝으로 제시한다.”, “계열 내의 빈칸은 모두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계열 내에서 체계적으로 빠지는 소어휘군은 등재하지 않는다. 이는 북한어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예컨대, ‘달가닥’ 계열의 어휘군 가운데 ‘탈까닥’ 계열은 기존 사전에 모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되므로 이 계열의 단어들은 등재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침을 참고하면, 처리상의 명백한 실수임을 부인할 수 없다.

(6) 자립형의 의성의태어에 '-하다'가 결합되는 경우 가운데, 다음의 경우는 하나의 단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등재하지 않고 해당 부사에서 용례로 제시한다.

① 순간성을 나타내는 의성의태어와 결합한 경우 : 땅하다, 빙하다, 빵하다, 쿵하다, 광하다, 광하다, 반짝하다

☞ '쿵하다'는 삭제하고 '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다'와 같은 용례를 제시한다.

② 한 음절이 세 번 반복되는 의성의태어와 결합된 경우 : 돌돌돌하다, 빵빵빵하다, 줄줄줄하다

☞ '구구구', '줄줄줄', '쩍쩍쩍'과 같이 한 음절이 세 번 반복되는 의성의태어 역시 삭제한다.

③ 기타 : 똥똥하다, 땡땡하다, 땡땡하다, 뽕뽕하다, 뱅뱅하다, 빙빙하다, 땡땡하다, 땅땅하다, 둥둥하다, 둥둥하다, 붕붕하다, 땡땡하다, 쓱쓱하다, 쓱쓱하다, 징징하다

①에서 가령 '빙'에는 '빙 하고 머리가 돌더니 의식을 잃었다' 정도의 용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사전에 제시된 14개의 용례는 모두 '빙 돌다/두르다'류만 보인다. 한편 ③의 예 대부분은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지침과는 상반된 처리 결과이다.

<북한어의 표제어 처리>

북한어 의성의태어의 범위와 등재 여부는 《조선말대사전》의 처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원칙에 어긋나거나 《조선말대사전》의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처리를 따르지 않았다.

(7) 북한어 어근은 제시하지 않는다.

허기적 【북】 '허기적거리다'의 어근적 단어. ⇒ 삭제

- (8)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를 처리할 때는 같은 어휘군 내의 다른 단어들의 뜻 풀이나 동음이의어 처리를 참조하도록 한다.
- (9) 현재 북한어의 반복형에 ‘-하다’가 결합한 어형이 미등재된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어형들은 모두 등재한다.
- (10) 《조선말대사전》에는 ‘참고 어휘’로만 제시되고 표제어로는 등재되지 않은 것들이 다수 있는데, 이들을 등재한다.
- (11) ‘-거리다/대다’, ‘-하다’, ‘-이다’가 어근과 결합하는 경우, 남한어 의성의태어와는 달리 북한어 의성의태어는 주표제어로 처리한다.

(8)에서 남한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북한어의 경우에도 같은 어휘군 내에서 일관되게 처리되지 않은 예가 발견된다. 한편 (11)과 같이 처리하는 이유는 (7)에 의거, 북한어의 경우에 어근으로 판단되는 것은 삭제했기 때문이다. 남한어의 오폭기(‘~의 잘못’)나 방언에도 같은 이유(어근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로 파생어들이 주표제어로 처리되어 있다.

- (12) 북한어 표제어가 직관적으로 남한어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 남한어로 처리한다. 단, 같은 어휘군 내의 처리는 동일하게 한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쏟쏟’와 ‘쏟쏟’이 남한어로 처리되어 있다. 이들 단어는 《조선말대사전》에만 수록되었지만 교열 과정에서 남한어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유사한 뜻풀이가 ‘술술, 술술’에서 북한어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어휘군 내의 처리 동일 원칙에 따라 북한어의 뜻풀이를 살려 제시하고 있다.

2.1.2 어개번호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의 처리를 기존과 달리 한 경우, 혹은 새로운 표제어의 등재로 어개번호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되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동음이의어 표제어의 어개번호를 모두 수정했다. 한편 준말형이

다른 단어와 동음이의어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말형의 어깨번호를 뒷번호로 처리했다.

- (13) ‘털컹¹’과 ‘털컹²’의 경우 ‘털컹덕’의 준말을 ‘털컹²’로 한다. 파생어형의 처리 역시 이와 동일하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판정 결과는 어깨번호 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고려해서 어깨번호를 결정했다.

(14) 동음이의어인 경우

- ① 어원적으로나 이차 발달 면에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특별한 의미적 관계가 없을 경우

쌀쌀¹ ㉠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양.
쌀쌀² ㉠ 차가운 감촉.

- ② 형태적 파생 양상이 다를 경우

쌀쌀은 ‘살살, 설설, 슬슬, 쌀쌀, 썰썰’의 음운 교체와 ‘거리다/대다’의 접사 파생 가능. 그러나 쌀쌀²는 ‘썰썰, 썰썰’의 음운 교체를 보이며 어기의 단독 사용 불가.

(15) 다의어의 경우

- ① 의미 전이에 의해 분화된 경우(표현하는 감각이 다르더라도 다의어 처리)

바글 ㉠ ① 사람이나 동물이 많이 모여 웅성대는 모양. ② 물이 끓는 소리.
 ㉡ 북적거리고 들끓는다는 의미의 공통된 부분을 가짐

- ② 형태적 파생 양상이 동일한 경우

- ③ 음운 교체에 의한 소어휘군의 일부만이 다른 감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 물체의 꼬인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베베나 ‘비비’는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 그러나 ‘베베, 비비’는 시각 의성의태어로만 사용.

2.1.3 붙임표

표제어에는 ‘-’기호를 이용하여 구성 성분을 보여주고 있다.

- (16) ㄱ. 반짝, 반짝-반짝, 반짝-거리다/반짝-대다/반짝반짝-하다
 ㄴ. 후, 후-후, 후후-거리다/후후-대다/후후-하다
 ㄷ. 졸졸, 졸졸-거리다/졸졸-대다
 ㄹ. 재재-재재, 재재-거리다/재재-대다/재재재재-하다

(16ㄴ)에서 1음절의 표제어가 있는 경우의 2음절 반복형에는 IC분석을 함을 보이고 (16ㄷ)에서 한 음절이 두 번 반복된 형태만 있는 경우에는 IC분석을 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사전과 다른 분석 태도라 하겠다. (16ㄹ)에서 ‘재재’가 어근이므로 ‘재재-재재’로 IC분석하기로 한 것이다.

2.2 뜻풀이

2.2.1 품사

같은 어휘군 내 단어들의 품사는 일관되게 처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아래 (17)과 같은 처리방식이다. 한편 동작성의 의태어에 ‘-하다’가 결합한 어형은 동사로, 상태성의 의태어에 ‘-하다’가 결합한 어형은 형용사로 처리하고 있다.

- (17) 특히 어근이나 부사나의 판정에 일관성을 기할 것. ‘송당’은 어근, ‘쑹당, 송텅, 쑹텅’은 부사로 처리되어 있는데, 일관되게 처리할 것. 이 경우는 모두 부사로 처리.

2.2.2 문형 정보

같은 어휘군 내의 동일 접사 결합형 단어들의 문형 정보는 일관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같은 어휘군 내의 ‘-거리다’ 결합형과 ‘-대다’ 결합형의 문형 정보는 용례 등을 통해서 확실히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치시켰다.

- (18) ㄱ. **속닥거리다** ㉠ [(…을)] [(…과)] [(…에게…을)] [-다고]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ㄴ. **속닥대다** ㉠ [(…을)] [-다고]

- ㄴ'. **속닥대다** ㉮ 【(…을)】 【(…과)】 【…에게…을】 【-다고】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 ㄷ. **속닥거리다** ㉮ 【(…을)】 【-다고】
- ㄷ'. **속닥거리다** ㉮ 【(…을)】 【(…과)】 【…에게…을】 【-다고】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18ㄷ)의 ‘속닥거리다’의 문형 정보보다 (18ㄴ)의 ‘속닥거리다’의 문형 정보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되므로 ‘속닥거리다’의 문형 정보를 따라 ‘속닥대다, 속닥거리다, 속닥대다, 속닥대다, 속닥대다, 속닥거리다, 속닥대다’의 문형 정보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가령 (18ㄴ', ㄷ')이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처리 결과이다.

2.2.3 뜻풀이

기본 뜻풀이는 같은 계열(큰말 계열, 작은말 계열)로 묶일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여린말에서 하고 있다.⁵⁾ 여린말이 없고 된소리와 거센소리만 있는 경우에는 된소리에서 뜻풀이했으며 여린말보다 센말이나 거센말이 널리 쓰일 경우에는 널리 쓰이는 쪽에서 뜻풀이하고 있다. 예컨대, ‘반작’보다 ‘반짱’이 널리 쓰이는 경우, ‘반짱’에서 기본 뜻풀이를 한다. 한편 ‘큰말 계열’과 ‘작은말 계열’로 나누는 것은 모음의 교체(양성모음/음성모음)에 따른 어감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양성모음이면 작은말 계열, 음성모음이면 큰말 계열에 속하는데, 35가지 대립 체계 세우고 있다.

‘큰말 계열’과 ‘작은말 계열’은 같은 형식으로 뜻풀이하되, 각 계열간에 의미 차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뜻풀이를 시도했다.

(19) **반짝** ㉮ 작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번쩍 ㉮ 큰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오글-오글 ㉮ 적은 물이 좁은 그릇에서 야단스럽게 자꾸 끓는 소리.

우글-우글 ㉮ 많은 물이 좁은 그릇에서 야단스럽게 자꾸 끓는 소리.

5) ‘여린말’이란 자음이 ‘여린소리(평음)’에 속하는 말이다.

썩 ㄷ ① 안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밖으로 불룩하게 나온 모양. ② … ㉠…

썩 ㄷ ① 안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밖으로 불룩하게 나온 모양. ② … ㉠…

(밑줄은 필자의 것. 이하 동일)

‘큰말 계열’과 ‘작은말 계열’이 1:1의 대응 관계가 아닐 경우, 큰말과 작은말의 의미 차이를 밝히고 있다. 작업 원칙을 예를 통해 알아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20) **살긋** ㄷ ㉠ 썰긋; 살긋
썰긋 ㄷ ㉠ 썰긋; 살긋
살긋 ㄷ ㉠ 썰긋; 살긋, 썰긋

☞ ‘살긋’의 작은말인 ‘살긋’과 ‘썰긋’은 뜻풀이를 달리 한다. ‘살긋:썰긋’의 관계는 제시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똑같이 뜻풀이할 수 없다. 따라서 부사 따위를 사용하여 그 의미 차이를 밝혀 뜻풀이해 준다.

‘살긋’과 ‘썰긋’이 의미로 보나 파생관계로 보나 관련어가 아닐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ㅏ’가 ‘ㅑ’보다 개구도가 더 크므로 ‘살긋’이 ‘썰긋’보다 더 큰 말이라는 정보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지침에 따라 억지로 ‘살긋’과 ‘썰긋’을 뜻구별함으로써 정의가 기존 사전들보다 못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구별했다는 의미가 정말 의미 차이를 보이는지 의심스럽다. 가령 ‘살긋’은 ‘약간 기울어진 ~’, ‘썰긋’은 ‘조금 기울어진 ~’ 정도로 풀이하고 있는데, ‘약간’과 ‘조금’의 정도 차이는 현대국어 화자에게 감지되지 않는다.

같은 계열에 속하는, 기본 표제어(가장 어린말) 이외의 표제어들은 기본 표제어의 뜻풀이를 반복한 다음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을 써서 기본 표제어와의 어감의 차이를 살려 보여 주고 있다. ‘○○-대다’는 ‘○○-거리다’와 동의어 처리하므로 어감의 차이를 보여 주지 않는다.

널리 쓰이는 센말이나 거센말에서 뜻풀이한 경우에 ‘센말’을 기준으로 ‘여린말’의 뜻풀이는 ‘여리다’로, ‘거센말’을 기준으로 ‘여린말’의 뜻풀이는 ‘약하다’로 하고 있다.

(21) **반짝-반짝** ㉮ 작은 빛이 잇따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반작-반작 ㉮ 작은 빛이 잇따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반짝반짝’보다 여린 느낌을 준다.

하나의 기본 표제어에 대하여 센말, 거센말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을 써서 기본 표제어와의 어감의 차이를 보여 주되, ‘조금 센, 센, 아주 센’이나 ‘조금 거센, 거센, 아주 거센’과 같은 어감의 차이는 각 계열(센말 계열, 거센말 계열)에 속하는 표제어들을 첫음절의 자음, 둘째 음절의 자음 순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세고 거센’ 느낌을 주는 말들은 ‘조금, 아주’와 같은 세분된 어감의 차이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22)

어감 표현	·	조금 센	센	아주 센	조금 거센	거센	아주 거센	세고 거센	세고 거센
첫음절	여린소리	여린소리	센소리	센소리	여린소리	거센소리	거센소리	센소리	거센소리
둘째음절	여린소리	센소리	여린소리	센소리	거센소리	여린소리	거센소리	거센소리	센소리

잘가닥 ㉮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까닥 ㉮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조금 센 느낌을 준다.

잘카닥 ㉮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조금 거센 느낌을 준다.

팔가닥 ㉮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센 느낌을 준다.

팔까닥 ㉮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아주 센 느낌을 준다.

팔카닥 ㉮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세고 거센 느낌을 준다.

찰가닥 ㉮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찰까닥 ㉮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세고 거센 느낌을 준다.

찰카닥 ㉮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아주 거센 느낌을 준다.

의성의태어의 뜻풀이는 다음의 형식으로 처리했는데, 의성어의 경우는 ‘-

하는 소리.'로 뜻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하는 소리.'로 뜻풀이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할 때 나는 소리.'의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아서 나는 소리.'의 형식으로는 뜻풀이하지 않았다.

(23)

- 바각** ㉠ 작고 단단한 물건이 맞닿는 소리. (×)
바각 ㉠ 작고 단단한 물건이 맞닿아서 나는 소리. (×)
바각 ㉠ 작고 단단한 물건이 맞닿을 때 나는 소리. (○)

의태어의 경우, 형상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하는 모양.'의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사물이나 현상의 형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상태.'로, 촉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느낌.'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24)

- 반짝** ㉠ 작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지끈-지끈 ㉠ 머리나 몸 따위가 자꾸 몹시 쭈시며 아픈 상태.
말랑-말랑 ㉠ 너무 익거나 풀어서 매우 무른 느낌.

의성태어의 경우는 '-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하는 소리. 또는 그 느낌.'으로 뜻풀이하고 있다.⁶⁾ 그러나 '-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으로 뜻풀이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의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소리보다 모양을 주로 나타내는 경우에도 이 형식을 따르고 있다.

(25)

- 잘가닥** ㉠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잘가닥 ㉠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쳐서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잘가닥 ㉠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6) '의성태어'란 의성성과 의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어휘소를 일컫는다(줄고 1998, 1999).

- 달랑-달랑** ㉞ ① 물체가 매달려 자꾸 흔들리는 모양. 또는 그러할 때 나는 소리.
 ② 뜻풀이. (×)
달랑-달랑 ㉞ ① 물체가 매달려 자꾸 흔들릴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② 뜻풀이. (○)

‘○○-거리다’의 뜻풀이 형식은 다음과 같다. 의성어는 자동사인 경우에 ‘-하는 소리를 계속/잇따라/자꾸 내다/지르다.’ 또는 ‘-하는 소리가 계속/잇따라/자꾸 나다.’의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자·타동사인 경우 : ‘-하는 소리가 계속/잇따라/자꾸 나다. 또는 그러한 소리를 계속/잇따라/자꾸 내다.’의 형식으로 뜻풀이한다.

(26)

- 까옥-까옥** ㉞ 까마귀가 잇따라 우는 소리.
까옥-거리다 ㉞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잇따라 내다.

바스락-거리다 ㉞ 【(...을)】 마른 검불이나 나뭇잎 따위를 밟거나 뒤적이는 소리가 자꾸 나다. 또는 그러한 소리를 자꾸 내다. = 바스락대다.

의태어는 자동사나 타동사인 경우에 부사형을 ‘-하는 모양’ 또는 ‘-한 상태.’로 뜻풀이한 경우에는 ‘계속/잇따라/자꾸 -하다.’로, ‘-한 느낌.’으로 뜻풀이한 경우에는 ‘-한 느낌이 계속/잇따라/자꾸 들다.’의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27)

- 걸근-걸근** ㉞ 남의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아주 치사하고 구차스러운 짓을 자꾸 하는 모양.
걸근-거리다 ㉞ 남의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아주 치사하고 구차스러운 짓을 자꾸 하다.
울렁-울렁 ㉞ ① 뜻풀이. ② 뜻풀이. ③ 토할 것 같이 자꾸 메스꺼운 상태.
울렁-거리다 ㉞ ① 뜻풀이. ② 뜻풀이. ③ 토할 것 같이 자꾸 메스껍다.

몽글-몽글 ㉞ 멍울진 물건이 말랑말랑하고 매끄러운 느낌.

몽글-거리다 ㉞ 멍울진 물건이 말랑말랑하고 매끄러운 느낌이 자꾸 들다. = 몽글 내다.

자·타동사인 경우에는 한 문장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한 문장으로 뜻풀이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다. 또는 그렇게 하다’나 ‘-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의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28)

달달-거리다 ㉞ 【(...을)】 춤거나 무서워서 계속 몸이나, 몸의 일부를 조금씩 떨다.

가동-거리다 ㉞ 【(...을)】 어린아이의 겨드랑이를 치켜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어를 때에, 아이가 다리를 오그렸다 폈다 하다.

까우똥-거리다 ㉞ 【(...을)】 물체가 자꾸 이쪽저쪽으로 비스듬히 쏠리며 흔들리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반짝-거리다 ㉞ 【(...을)】 작은 빛이 자꾸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 반짝대다.

그러나 좋은 정의는 두 개 이상의 문장일 수는 없다는 조건을 생각하면, 동어 중복이 되더라도 단문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반짝거리다’는 ‘작은 빛이 자꾸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하다’ 정도면 이것의 자/타동적 의미를 잘 내포할 수 있다.⁷⁾

의성태어는 자동사인 경우에 ‘계속/잇따라/자꾸 -하다’, ‘-하는 소리가 계속/잇따라/자꾸 나다’, ‘-한 느낌이 계속/잇따라/자꾸 들다.’ 또는 ‘-하는 소리를 계속/잇따라/자꾸 내다.’의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29)

물물 ㉞ 곧하게 깊이 잠들어 크게 숨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7) 혹은 ‘작은 빛이 자꾸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그렇게 하다’도 괜찮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중에 ‘~그렇게 되게 하다’와 같은 내용 표현은 어법에 어긋난다. 가령 ‘반짝거리다’의 경우 ‘~그렇게 되게 하다’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게 하다’라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의 내용용법이 되기 때문이다.

쿨쿨-거리다 ㉮ 곤하게 깊이 잠들어 크게 숨쉬는 소리를 자꾸 내다.

살강-살강 ㉮ 설익은 곡식이나 열매 따위가 자꾸 가볍게 썩히는 소리. 또는 그 느낌.

살강-거리다 ㉮ ① 설익은 곡식이나 열매 따위가 가볍게 썩히는 소리가 자꾸 나다.
 ② 설익은 곡식이나 열매 따위가 가볍게 썩히는 느낌이 자꾸 들다.

여기서의 의성태어는 어떤 어휘소가 소리와 모양을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때 소리가 주인가 모양이 주인가 하는 방향성도 고려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가령, ‘찰랑찰랑’은 ‘물이 넘칠 정도로 넘실거리는 모양’으로 그 결과 ‘소리’를 동반한다고 보면, ‘-하는 모양 또는 그 소리’로 정의 형식을 취하고, ‘찰찰’은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소리’로 ‘첹첹’과 비교하여 적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는 모양을 동반하므로, ‘-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의 정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타동사인 경우는 ‘계속/잇따라/자꾸-하다.’ 또는 ‘-하는 소리를 계속/잇따라/자꾸 내다.’의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자·타동사인 경우에 소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하는 소리가 계속/잇따라/자꾸 나다. 또는 그러한 소리를 계속/잇따라/자꾸 내다.’의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 하다. 또는 그렇게 하다’나 ‘- 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의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대다’의 뜻풀이 형식은 다음과 같다.

(30) ○○-대다 #4 「동」 = ○○거리다

‘○○-하다’의 뜻풀이 형식은 ‘자립형 + -하다’의 경우에 남한어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31) ○○-하다 #4 「동」 => ○○
 ○○-하다 #4 「형」 => ○○

몽글몽글 ㉮ 뜻풀이.

몽글몽글-하다 ㉮ => 몽글몽글.

딸까당딸까당 ㉮ 뜻풀이.

딸까당딸까당-하다 ㉮ [(...을)] => 딸까당딸까당.

대응 남한어가 없는 북한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32) ○○-하다 #4 「동」 「복」 => ○○

○○-하다 #4 「형」 「복」 => ○○

대응 남한어가 있는 북한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33) ○○-하다 #4 「동」 ‘○○하다’의 북한어.

○○-하다 #4 「형」 ‘○○하다’의 북한어.

쟁가당 ㉮ ‘쟁강’의 북한어.

쟁가당거리다 ㉮ ‘쟁강거리다’의 북한어.

쟁가당하다 ㉮ [복] => 쟁강. (×)

쟁가당하다 ㉮ [복] ‘쟁강하다’의 북한어. (○)

한편 ‘어근 + -하다’의 경우에는 ‘어근’의 부표제어로 삼고, 직접 뜻풀이를 주고 있다.

(34)

찌릿 ‘찌릿하다’의 어근.

찌릿-하다 ㉮ ① 살이나 뼈마디에 매우 저린 느낌이 일어난다. ② 마음에 매우 저린 느낌이 일어난다.

‘○○-이다’의 뜻풀이 형식은 다음과 같다.

(35) ○○-이다 #4 「동」 뜻풀이.

속닥-이다 ㉮ 패를 이룬 무리끼리 은밀히 이야기하다.

같은 어휘군 내 단어들의 뜻풀이에 일관성을 기하고 있는데, 우선 뜻풀이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36)

술술 ㉠ ① … ② 가는 비나 눈이 계속 가볍게 내리는 모양. ③ … ④ … ⑤ … ⑥ …

술술 ㉠ ① … ② 가는 비가 계속 가볍게 내리는 모양.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복] …

⇒ **술술** ㉠ ① … ② 가는 비나 눈이 계속 가볍게 내리는 모양.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복] …

동일 어휘군인 ‘술술, 술술’은 ‘술술’의 뜻풀이를 참조하여, ‘술술’도 동일하게 뜻풀이를 주고 있다. 한편 뜻풀이 분할배열의 일관성도 유지하고 있다.

(37)

술술 ㉠ ① … ② … ③ … ④ 엷히거나 쌓이었던 일들이 쉽게 잘 풀리는 모양. ⑤ 엷힌 실이나 끈 따위가 쉽게 잘 풀리는 모양. ⑥ … ⑦ … ⑧ … ⑨ … ⑩ [복] …

술술 ㉠ ① … ② … ③ … ④ … ⑤ 엷혔던 실이나 일 따위가 쉽게 잘 풀리는 모양.

⇒ **술술** ㉠ ① … ② … ③ … ④ 엷히거나 쌓이었던 일들이 쉽게 풀리는 모양. ⑤ 엷힌 실이나 끈 따위가 쉽게 잘 풀리는 모양. ⑥ …

의성의태어 관정의 일관성도 고려하고 있는데, 같은 어휘군 내에서는 의성어나, 의태어나, 의성태어나의 판단이 일관되게 처리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같은 어휘군 내 대응 단어들의 대응 뜻풀이의 변별에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큰말 계열과 작은말 계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38)

반짝 ㉠ 작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반쩍 ㉠ 큰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오늘-오늘 ㉠ 적은 물이 좁은 그릇에서 야단스럽게 자꾸 끓는 소리.

우글-우글 ㉮ 많은 물이 좁은 그릇에서 야단스럽게 자꾸 끓는 소리.

‘-거리다’ 결합형과 ‘-이다’ 결합형의 경우 변별하고 있는데, 의미상의 차이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하게 뜻풀이하고 있다.

(39)

속닥거리다 ㉮ 여러 사람이 모여 저희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다.

⇒ **속닥거리다** ㉮ 여러 사람이 모여 저희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자꾸 이야기하다.

속닥이다 ㉮ 여러 사람이 모여 저희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다.

‘-이다’ 결합형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거리다’ 결합형에는 반복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뜻풀이 변별을 했다. 그러나 ‘-이다’ 결합형이 반복의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어 지침에는 의성의태어를 “-하는 소리”, “-하는 모양”, “-하는 소리 또는 모양”으로 뜻풀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하는 소리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과 같은 메타언어적 뜻풀이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북한어 의성의태어의 뜻풀이도 남한어의 의성의태어 뜻풀이 형식을 따라 처리하고 있다.

(40)

사스락 ㉮ [북] 가는 꼬챙이 같은 것이 종이 위를 가볍게 쓸리면서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 ㉮ [북] 가는 꼬챙이 같은 것이 종이 위에 가볍게 끌릴 때 나는 소리.

가뽅가뽅 ㉮ [북] 여러 그릇에 다 가뽅하게 잔뜩 차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 [북] 여러 그릇들이 다 가득 차 있는 모양.

그러나 북한의 뜻풀이가 의성의태어에 대한 더 정확한 정의 형식임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성의태어는 엄밀히 말해서 ‘소리’나 ‘모양’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자립 어휘소/단어/낱말’이기 때문이다. 사전의 정의가 쉬우면 쉬울수록 좋기는 하지만, 불가피할 때, 메타언어적 뜻풀이를 무조건 기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2.3 관련어⁸⁾

‘○○-거리다’와 ‘○○-대다’는 ‘○○-거리다’를 기본 표제어로 하여 동의어로 처리하고, ‘○○○○-하다’는 ‘○○-거리다, ○○-대다’와 비슷한말로 처리하고 있다. 한 음절이 반복되는 의성의태어에 ‘-하다’가 붙은 ‘○○-하다’의 경우, 1음절형이 부사인 경우는 ‘○○-하다’가, 1음절 반복형이 어근인 경우에는 ‘○○○○-하다’가, 1음절 반복형이 부사인 경우는 ‘○○-하다’가 ‘○○-거리다, ○○-대다’와 비슷한말이며, 나머지 어형은 표제어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한편 ‘○○○○-하다’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거리다, ○○-대다’와 비슷한말로 처리하지 않는데, 품사가 다른 말끼리는 비슷한말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1)

잉 ㉞ 뜻풀이.

잉-잉 ㉞ 가늘고 팽팽한 철삿줄이나 전깃줄 따위에 세찬 바람이 잇따라 부딪칠 때 나는 소리 ㉞. 날벌레가 계속해서 나는 소리.

잉잉-거리다 ㉞ 뜻풀이. = 잉잉대다. ㉞ 잉잉하다.

잉잉-하다 ㉞ => 잉잉. ㉞ 잉잉거리다·잉잉대다.

잉잉 ㉞ 어린아이가 입을 찡그리듯 벌리고 땀살스럽게 자꾸 우는 소리.

잉잉-거리다 ㉞ 뜻풀이. = 잉잉대다. ㉞ 잉잉하다

잉잉-하다 ㉞ => 잉잉. ㉞ 잉잉거리다·잉잉대다.

재재 ‘재재거리다’의 어근.

재재-거리다 ㉞ 뜻풀이. = 재재대다. ㉞ 재재재재하다

8) ‘센말, 거센말, 큰말, 작은말’은 관련 어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재재재재-하다 => 재재재재. ㉞ 재재거리다 · 재재대다.

‘○○-이다’는 비슷한말로 제시하지 않았다. 반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준말을 관련 어휘로 제시하고 있다. 뜻풀이를 주표제어로 돌리는 ‘○○-하다, ○○○○-하다’나, ‘○○-거리다’와 동의어로 처리되는 ‘○○-대다’ 역시 해당 준말만 제시하고 본말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말이 어근일 경우에는 준말을 제시하지 않았다.

(42)

딸까당 ㉞ 뜻풀이. ㉞ 딸깁.

딸까당-거리다 ㉞ 【(...을)】 뜻풀이. ㉞ 딸깁거리다. ㉞ 딸까당딸까당하다.

딸까당-대다 ㉞ 【(...을)】 = 딸까당거리다. ㉞ 딸깁대다. ㉞ 딸까당딸까당하다.

딸까당딸까당 ㉞ 뜻풀이. ㉞ 딸깁딸깁.

딸까당딸까당-하다 ㉞ 【(...을)】 => 딸까당딸까당. ㉞ 딸깁딸깁하다. ㉞ 딸까당거리다 · 딸까당대다.

딸깁 ㉞ ‘딸까당’의 준말.

딸깁-거리다 ㉞ 【(...을)】 ‘딸까당거리다’의 준말. ㉞ 딸깁딸깁하다.

딸깁-대다 ㉞ 【(...을)】 = 딸깁거리다. ㉞ 딸깁딸깁하다.

딸깁딸깁 ㉞ ‘딸까당딸까당’의 준말.

딸깁딸깁-하다 ㉞ 【(...을)】 => 딸깁딸깁. ㉞ 딸깁거리다 · 딸깁대다.

썰라닥 ‘썰라닥거리다’의 어근. (‘썰라닥’은 어근이므로 준말을 제시하지 않는다.)

썰라닥-거리다 ㉞ ① 뜻풀이. ② 뜻풀이. ㉞ ①썰라닥거리다. ㉞ 썰라닥썰라닥하다.

썰라닥-대다 ㉞ ① = 썰라닥거리다[1]. ② = 썰라닥거리다[2]. ㉞ ①썰라닥대다. ㉞ 썰라닥썰라닥하다.

한편 ‘노글노글, 노근노근, 노긋노긋’의 경우와 같이 뜻풀이가 서로 매우 유사하고 형태상 받침의 차이만 있는 경우에 이들을 서로 비슷한말로 인정하지 않았다. 각기 뜻풀이를 달리 처리하고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어로 처리된 ‘노근노근’을 비롯하여 ‘노글노글, 노긋노긋’은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관련어가 아닌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그 뜻풀이를 자세히 보면, ‘노근노근=메마르지 않고 녹녹해서 좀 부드러운 모양’, ‘노글노글=좀 무르고 보드라운 모양’, ‘노긋노긋=여럿이 다 또는

매우 매마르지 않고 녹녹한 모양으로 의미정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의미구별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관련성만 높여 놓고, 관련어 정보를 삭제한 것은 사전편찬 원칙의 오류로밖에 볼 수 없다.

본말과 준말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이 형태소 이하의 단위가 탈락한 의성의태어는 준말로 처리하고 있다. ‘가들가들/가드락가드락’의 ‘악’, ‘아칠아칠/아치랑아치랑’의 ‘앙’, ‘찰각/찰카닥’의 ‘다’, ‘겉끔/겉끄름’의 ‘르’, ‘캐득/캐드득’의 ‘드’ 등을 형태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준말로 보고 있다. 물론 전자가 후자로 늘어났는지 후자가 전자로 줄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는 하지만 이들을 모두 준말로 처리하고 있다. 본말에서 뜻풀이를 하고, 준말에서는 “본말의 준말.” 형식을 사용했다. 단, ‘다다귀다다귀’와 ‘다닥다닥’의 경우와 같이 준말형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준말형에서 뜻풀이를 하고, 본말에서는 “준말의 본말.” 형식을 사용했다.

북한어 의성의태어도 남한어의 준말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남한어에서는 준말 관계로 인정하나 북한어에서는 각기 뜻풀이한 경우에도 남한어의 준말 지침에 따라 준말로 처리했다.

(43)

《조선말대사전》

절까닥 ㄱ [북] 크고 단단한 물체가 맞부딪칠 때 나는 고르지 못한 소리.**절깍** ㄱ [북] 크고 단단한 물체가 맞부딪칠 때 좀 빠르고 고르지 않게 나는 소리.**절깍하다** ㄱ [북] => 절깍.

《표준국어대사전》

절까닥 ㄱ [북] 크고 단단한 물체가 고르지 못하게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절깍** ㄱ [북] ‘절까닥’의 준말.**절깍하다** ㄱ [북] => 절깍.

2.4 참고어⁹⁾

9) 이형태, 셋 이상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는 동류 개념, 상위 범주어, 하위 범주어, 동의 관계에 있는 일반어나 전문어, 별칭어나 이칭어, 느낌이 다른 의성의태어, 모음이나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진 말(의성의태어나 자모음 교체를

참고어는 각 계열의 여린말 부사에서만 제시하고 센말, 거센말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단, 널리 쓰이는 센말이나 거센말에서 기본 뜻풀이를 한 경우에는 기본 뜻풀이가 되어 있는 어형에서 참고어를 제시했다. 또한, 여린말이 어근인 경우에는 ‘-거리다’ 결합형에서, ‘-거리다’ 결합형이 없으면 ‘-하다’ 결합형에서 참고어를 밝혀주고 있다.

주표제어인 부사에서 제시한 경우

(44)

잘가닥 ㉞ 잘까닥 · 잘카닥 · 잘가닥 · 잘까닥 · 잘카닥 · 잘가닥 · 잘까닥 · 잘카닥; 절거덕.

잘까닥

잘카닥

널리 쓰이는 센말에서 뜻풀이한 경우

(45)

반작

번쩍

반쪽 ㉞ 반작 · 반작 · 뽀짝 · 번쩍; 번쩍.

번쩍 ㉞ 번쩍 · 뽀짝 · 뽀짝; 반쪽.

반쪽-거리다

여린말 부사에서 참고어를 제시해 주었으므로 ‘-거리다’ 결합형에서는 참고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여린말이 어근이어서 ‘-거리다’ 결합형에서 제시한 경우¹⁰⁾

보이는 표제어의 참고어에는 ‘센말, 거센말, 큰말, 작은말’, 자유교체형(아빨사/하빨사), 모음교체형(강충/장충)을 들 수 있다.), 대립적인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반의 관계로 볼 수 없는 말,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조가 되는 말, 구별해야 하는 말, 선행하는 어간의 종류에 따라 분화되는 어미, 같은 범주에 속하는 문법 형태들을 참고어로 처리했다. 참고어는 남한어의 표준어에서만 제시하고 이 때, 제시되는 참고어 역시 남한어의 표준어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어는 참고어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제어가 남한어 표준어일 경우에도 어근인 경우에는 참고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10) 여린말이 어근이고 ‘-거리다’ 결합형이 없어서 ‘-하다’ 결합형에서 제시한 경우에

(46)

송당 ‘송당거리다’의 어근

송당-거리다 ㉸ 송당거리다; 송덩거리다.

송당-거리다 (‘송당거리다’의 센말이므로 참고어를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어는 가능한 자음의 교체형 중에서 사전에 올라 있는 어휘를 가나다 순으로 모두 제시하고 모음의 교체형은 표제어에 대응하는 어형만을 제시했다. 모음이나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의 말도 표제어에 대응하는 어형(자음교체형, 모음교체형)만 제시하고 있다(자음과 모음이 모두 교체된 어형은 제시하지 않았다).

(47)

잘가닥 ㉸ 잘까닥·잘카닥·잘가닥·잘까닥·잘카닥·잘가닥·잘까닥·잘카닥; 절기덕

반짜 ㉸ 반작·반작·반짜; 반쩍

번쩍 ㉸ 번적·번적·번쩍; 반짜

평평 ㉸ 평평; 빵빵.

까룩-까룩 ㉸ 끼룩끼룩.

끼룩-끼룩 ㉸ 까룩까룩.

(48)

우들-우들 ㉸ 오들오들; 부들부들(삭제).

(48)은 작은말과, 모음이나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부들부들’은 어근의 초성자음 모두 달라진 경우이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태음소적 정보를 우선시한 참고 정보가 아닌가 한다. 효율적이고 친절한 사전은 의미정보까지 참고어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참고어에는 뜻풀이 번호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5 용례

‘-하다’ 결합형에 참고어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의성의태어 표제어에 용례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립국어연구원 말뭉치에서 용례를 뽑되, 전형적이라고 판단되는 예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합당한 용례를 뽑을 수 없을 때에는 작성례를 제시했다. 북한어 의성의태어는 《조선말대사전》의 용례를 제시하되, 용례가 없을 때는 용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사전에는 남한어임에도 용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2.6 파생어

남한어 의성의태어에서 파생된 표제어는 예외없이 부표제어로 처리한다. 오폭기나 방언의 경우, 어근이나 단독형 의성의태어를 표제어로 제시하지 않는 원칙에 의거, 그 파생어는 주표제어로 처리했다. 한편 북한어의 경우 단독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파생어는 주표제어로 처리했다. 파생어의 등재 여부는 2.1과 2.2에서 상세히 기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한다.

3. 맺음말: 의성의태어의 효율적인 사전 처리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의성의태어가 어떠한 지침 아래에 집필·교열이 되어서 이 세상에 얼굴을 내밀게 되었는지 언급하였다. 대체로 일관된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원칙의 완고함으로 체계에 융통성이 없어진 경우도 있었고, 교열과정에 지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체계가 흔들린 경우도 있었다. 이는 사전편찬자의 미숙함에도 원인이 있지만,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결과물을 내려고 한 데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전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적은 자본으로, 턱없이 부족한 시간 안에 낸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의 Oxford 사전이나 Collins Cobind 사전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¹¹⁾

단어 하나를 완전한 미시구조를 이루고서 등재하기 위해서는 일년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표제어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표제어의 미시구조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현대 사전학의 주류적 관점에서 사전을 만든다면 꽤 장고의 기간이 요구된다.¹²⁾ 하나의 표제어를 일년간의 기간을 두고 등재한다는 느긋하면서 진지한 태도가 따를 때에 훌륭한 국어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표준국어대사전》을 효율적이고 친절한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한 시행착오로 받아들이고, 그 후속 작업에 아낌없는 투자와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11) 물론 이들 사전이 만들어진 경위를 보면 국민들의 절대적인 관심도 필수조건이다.
 12) 표제어 중심으로 관련어를 묶어서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없다.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없는 사전은 효율적이고 친절한 사전이 아닌 셸이다. 어휘단위(lexical unit) 중심의 미시적 정보가 명시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제공될 때 표제어의 진정한 언어사전적 정보가 완성된다.

참고논저

- 강범모(1992), 「대화체 기계번역을 위한 사전의 통사, 의미 정보」, 『언어학』 14, 한국언어학회.
-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국어학총서 21), 태학사.
- 박동근(1992), 「‘상징소’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의 토씨와 씨끝』, 서광학술자료사.
- 서정욱(1993), 「국어 시능말 사전 편찬의 한 방안」, 『계명어문학』 8, 계명어문학회.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국어학총서 18), 태학사.
- 신종진(1998), 「현대국어 의성의태어 연구」, 『국어연구』 154, 서울대 석사논문.
- _____(1999), 「의성어의 조어원리와 단어형성 참여 양상」, 『형태론』 창간호, 박이정.
- 이병근(1985), 「국어사전과 음운론」, 『애산학보』 7, 애산학회.
- _____(1986), 「국어사전과 파생어」, 『어학연구』 22-3, 서울대 어학연구소.
- _____(1992), 「사전과 사전학」,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_____(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승녕(1954), 「음성상징론」, 『문리대학보』 2-2, 서울대 문리과대학학예부.
- 이현복·홍재성·심재기(1987), 「국어사전학의 여러 문제」, 『어학연구』 23-1, 서울대 어학연구소.
- 채 완(1987), 「국어 음성상징론의 몇 문제」, 『국어학』 16, 국어학회.
- _____(1993), 「의성어·의태어의 통사와 의미」, 『새국어생활』 3-2, 국립국어연구원.
- _____(2000), 「국어 의성어 의태어 연구의 몇 문제」, 『진단학보』 89, 진단학회.
- 홍재성(1987), 「현대 한국어 사전과 자동사/타동사 용법의 구분」, 『사전편찬학연구』 1, 한신문화사.
- Benson, M., Benson, E., Ilson, R. (1986), *Lexicographic Description of English*, John Benjamins Pub. Comp.
- Hartmann, R. R. K. (1983), *Lexicography: Principles and Practice*, Academic Press Inc.